

【 해외금융뉴스: 중국 】

합자생보사 1/4분기 실적 하락

- 최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가 발표한 2009년 1/4분기(1~3월)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합자생명보험회사들의 실적 하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생명(中國人壽)을 비롯한 중국보험회사들의 1/4분기 총수입보험료는 약 2,410억 위안으로 작년동기대비 10.2% 상승한 반면, 합자생명보험회사들은 작년보다 4.11% 하락한 약 115억 위안에 그침.
 - 중국 내 26개 합자생명보험회사들 중 15개사의 총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나 11개사는 평균 4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중에서 자오상신뤄생명(招商信諾人壽, 84.2% 하락), 서우황안타이생명(首創安泰人壽, 80.0% 하락), 중더안롄생명(中德安聯人壽, 74.5% 하락), 렌타이따뚜회이생명(聯泰大都會人壽, 73.9% 하락)을 포함한 7개사 실적은 작년에 비해 50% 이상 급락함.
- 이러한 합자생명보험회사들의 실적 악화에 대해 업계는 작년 하반기 이후 악화된 시장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방카슈랑스에 치중한 기존의 영업 전략을 고수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음.
 - 단기 매출 확대를 위해 그동안 주로 투자형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전략을 고수해 온 합자보험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이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반면에 중국보험회사들은 판매채널로 보험대리인(생활설계사)의 비중이 높아 시장환경 악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매출 신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되자 일찌감치 투자형 보험상품 판매를 지양하고 보장성 상품 판매 전략에 주력한 것이 매출 확대에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임.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북경상보 5/3)